

GLOCALISM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Empowering Sustainabl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Administration



대한민국시장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홍준표의 지방시대
대구광역시장

2023. 11 | Vol. 111 월간 지방시대

MAGAZINE

GLOCALISM



01

홍준표의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첨단산업이 골고루 재배치되고,
지방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는 시대

07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

- 09.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지원 사업
- 10.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13

대구광역시 주요 정보

- 15. 팔공산국립공원
- 17. 군위군 관광명소
- 19. 대구축제 통합브랜드
「판타지아대구페스타」



21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대구광역시 편

(주)아스트로젠 황수경 대표

29

지방시대, 중국 편

- 31. 청두 쌍류국제공항
(Chengdu Shuangliu International Airport)
- 33. 청두 텐푸국제공항
(Chengdu Tianfu International Airport)

37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

- 39. 공공의료 체계 강화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 43.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안)

“

지방시대는 첨단산업이
골고루 재배치되고,
지방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는 시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의 지방시대

지방시대는 첨단산업이 골고루 재배치되고,
지방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는 시대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찾아서

대구는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서울, 평양과 함께 한반도 3대 도시였고 해방 이후에도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근대산업의 부흥을 일으키며 국가 지도자를 4명이나 배출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대구경제를 이끌어가던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바뀌며, 대구도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결국 지난 30년간 1인당 GRDP 꼴찌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고질적인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산업구조 대개편의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지방의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또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하나, 둘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했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 교통체증 등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러 국가 경쟁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산업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 첨단산업이 전국에 골고루 재배치되면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인구도 분산될 것이다. 관건은 어떻게 첨단산업을 지방으로 재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난해 7월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인맥, 학맥을 중심으로 대구를 이끌어 온 기득권 카르텔을 깨트리는 강력한 혁신을 단행하였고, 2023년을 대구굴기(大邱崛起)의



원년으로 삼아 산업구조 대개편의 초석이 될 대형프로젝트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30년간 이어진 쇠락의 고리를 끊고 미래 50년 번영의 기반을 다져 한반도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지방시대의 거대한 첫걸음, TK통합신공항

과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고속도로였다면 지금은 하늘길이다.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제품 수출은 항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첨단기업들은 공항 근처에 둥지를 튼다. TK통합신공항에 미주·유럽 직항 노선을 개설해 기업들이 모이게 하고, 공항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배후신도시, 항공물류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거대

경제권을 구축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이 재배치되며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지난 4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숨가쁘게 달려와 현재 사전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올해 사업대행자가 선정되면 2025년 착공하여 2030년에는 TK신공항에서 미주와 유럽으로 이륙하는 대형항공기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TK통합신공항 개항으로 생기게 될 총면적 210만평의 기존 공항 부지는 주거 기능을 대폭 줄이고 상업과 첨단산업 기능을 강화하여 두바이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능가하는 글로벌 관광·상업·금융·산업 중심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남부경제권 구축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TK신공항에 이은 거대 경제권 구축을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는 달빛고속철도다.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이어주는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그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달빛고속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민선8기 달빛동맹 핵심과제로 정하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예타면제를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였고, 마침내 지난 8월 헌정사상 최대인원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올해 본회의 통과가 목표이다.

달빛고속철도가 건설되면 경유 지역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동서내륙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호남선·전라선·경부선 등 기존 철도와 연결된 순환철도망이 구축되어 남부경제권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또한, 전라권에서도 TK신공항 접근성이 좋아져 신공항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지고, 신공항은 항공·물류 수요가 뒷받침되어 그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대구는 ABB, 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5대 미래신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그 간 기반을 닦아온 로봇, 모빌리티, 의료는 고도화·첨단화하고 디지털 산업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ABB, 반도체를 새롭게 육성한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이었던 자동차부품, 기계금속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며 1조원대 투자 MOU를 체결하였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 로봇도시’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다.

AI·빅데이터 융합을 통해 첨단 의료산업 기술을



선도할 디지털 헬스케어도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공항 개항에 맞추어 SKT, 한화시스템 등 국내 대기업과 함께 대구 도심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UAM 운항노선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등 신수종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첨단센서 관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유치하고, 수성알파시티를 판교에 버금가는 ‘비수도권 최고의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과기부와 2.2조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5대 신산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7개의 지방시대를 응원하며..

그동안 역대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성과는 미미했다. 정부는 야심차게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지만,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상향식 정책 추진의 의지가 강해 보인다.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도 설계 단계부터 지방 정부가 주도해선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진척이 너무 더디다. 대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이미 전략을 수립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정부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위해서 정부는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해야 하고, 지자체는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커진 권한만큼 역량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자신만의 지방시대를 맞이하길 바란다.





대구광역시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지원 사업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POWERFUL DAEGU**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를 발급 받으신 대구 75세 이상 어르신은
7월 1일부터 대구(경산, 영천) 시내버스와 대구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무료! **시내버스 무료!**

시행일 2023년 7월 1일(토)

- 1 대구시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어르신
- 2 2023. 5.16(화) 부터 요일별 신청
- 3 ‘태어난 월’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 신청
- 4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실물카드)

신청 방법

실물카드 (행정복지센터)

- 원활한 발급을 위해 ‘태어난 월’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 시행
- 5부제 대상일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 즉시 발급 ※ 대리 신청 불가

구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차	12일	13일	14일	15일
2차	19일	20일	21일	22일
3차	26일	27일	28일	29일
4차	3월 6일	7일	8일	9일
5차	13일	14일	15일	16일

모바일카드 (스마트폰 앱 설치)

-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모바일 카드 발급(아이폰 불가)
- ※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선택 발급(동해 발급 불가)

발급 유의사항

- 대리발급 불가(부정사용 방지)
- 부정사용 적발 시 1년간 사용제한
- 본인과실 분실 재발급 비용 발생(3,000원)
- 타인 및 양도 사용을 금하며 타 지역 전출 시 사용불가

QR 코드

전국 최초로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 교통지원’ 사업 추진

대구광역시는 홍준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1일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 교통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대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대중교통 통합 무임 교통카드’로 대구 시내버스(경북 경산·영천 포함) 및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올 5월 초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같은 달 1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9월 30일 기준 통합 교통카드 발급 대상 노인 18만3천 여명의 71% 수준인 13만

여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이 중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카드는 341건이다. 이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위한 실버패스카드 발급률의 2배 이상이다.

통합카드 시내버스 사용 실적은 7월 1,434천건, 8월 1,562천건, 9월은 1,660천건으로 점진적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통합무임 승차는 28년까지 1세씩 확대하여 24년은 74세, 25년은 73세, 26년은 72세, 27년은 71세, 28년은 70세 이상이 대상이 되며 도시철도 무임대상자는 28년까지 1세씩 연령이 상향되어 24년 66세에서 28년에는 70세 이상으로 단계적 추진을 통해 재정부담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 (‘23년) 75세 → (‘28년) 70세 / ‘24년부터 매년 2~3만명 정도 증가

※ 교통수단별 ‘무임’ 적용 나이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시내버스	75세 이상	74세 이상	73세 이상	72세 이상	71세 이상	70세 이상
도시철도	65세 이상	66세 이상	67세 이상	68세 이상	69세 이상	70세 이상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시행으로 기존 대중교통 수혜자가 도시철도 역세권에 한정되었지만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124개 노선으로 확대되어 “어르신 교통복지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대형마트와 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매출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이 위축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을 요청해 오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전국 특·광역시 단위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이러한 지역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2022년 12월 대구시와 8개 구·군, 대·중소유통업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8개 구·군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상인회, 슈퍼마켓단체, 소비자단체, 주민단체, 유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8개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찬성 의결하였다.

그 결과, 대구시는 지난 2월 의무휴업일 변경 시행 고시를 통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였다.



대형마트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의 매출 감소 우려에 대응해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원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대형마트-중소유통업체 상생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대표적인 상생협력사업으로 '이마트 만촌점-동구시장 공동마케팅', '롯데마트 율하점-목련시장 식품안전 지원 협약', '홈플러스 내당점 전통시장 화재예방 소화기 전달식' 등이 있다.



규제혁신으로 지역상권, 시민 모두 大 만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의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주요 소매업종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우려와는 달리 전통시장의 2·4주 일·월요일 매출도 전체기간 증가율보다 2.4% 정도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5%가 의무휴업 평일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여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무휴업일 변경이 역외 소비를 줄이고 대구시민의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증진한 성공적 체감 행정 사례이며,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를 확대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대구광역시 주요정보

팔공산국립공원
군위군 관광명소
대구축제 통합브랜드「판타지아대구페스타」

팔공산국립공원

팔공산이 올 연말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자연·경관·문화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지난 5월 국립공원 승격이 확정되었다. 대구광역시 동구·군위군과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칠곡군에 걸쳐있는 팔공산의 면적은 126,058㎢이고 높이는 1,192m이다. 가을에 더욱 아름다운 팔공산의 명소 4곳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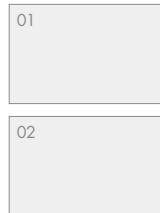
한국의 경관도로, 팔공산순환도로

아름다운 전경이 굽이굽이 펼쳐지는 팔공산순환도로는 동화사를 지나 부인사, 파계사로 이어지는 대구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명소이다. 봄에는 벚꽃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장관을 이룬다.



팔공산 정기가 서린 천년고찰, 동화사

동화사는 팔공산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신라 고찰로 대웅전, 비로암, 당간지주 등 수많은 문화재를 품고 있다. 특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세계 최대 규모의 약사여래대불은 그 웅장함과 신비스러움으로 유명하다.



01. 팔공산순환도로
02. 동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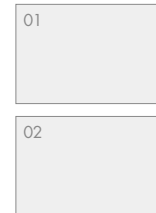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갯바위

팔공산 관봉에 위치한 갯바위는 정성스레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 새해와 대학 입시철이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는 곳이다.



해발 820m 아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

팔공산 케이블카에 타면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품어 나오는 신선한 피톤치드 공기를 마시면서 해발 820m 아래로 펼쳐지는 대구 시가지와 팔공산의 웅장한 모습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01. 갯바위
02. 팔공산 케이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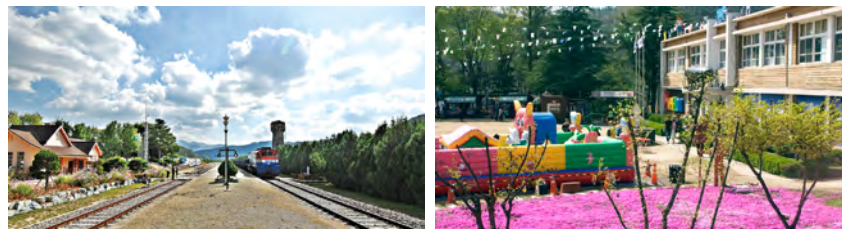
군위군 관광명소

2023년 7월, 관광자원이 풍부한 군위군이 관광마케팅 노하우가 풍부한 대구로 편입되면서 대구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군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4곳을 소개한다.

추억을 만나는 곳_화본역 &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 군위군 산성면

열차 매니아가 선정한 아름다운 간이역, 화본역은 예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담한 역사에서 보여지는 간이역 특유의 분위기가 관광객을 사로잡는다. 전국에 몇 남지 않은 급수탑도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역사를 더욱 운치있게 한다.

화본역 인근에 있는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는 폐교된 옛 산성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1960, 70년대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추억의 학교 테마 박물관이다. 40~50여 년전의 시골학교 교실을 비롯해 이발소, 사진관, 만화방, 문방구, 구멍가게, 연탄가게 등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나를 마주하는 내 안의 숲_사유원 / 군위군 부계면

풍류의 산수 사유원은 오랜 풍상을 이겨낸 나무와 마음을 빛은 석상, 세계적인 건축가의 건축물이 어우러진 사색의 공간이다. 단순히 초화류나 수목을 관람하는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원내를 거닐며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고뇌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사유의 정원을 지향하고 있다.

사유원에는 설립자가 평생을 모은 모과나무, 산수유나무, 배롱나무, 소나무와 같은 고목들로 조성된 여러 정원과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의 소요헌, 소대,



Copyright, 김중오



01. 화본역 /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02. 사유원(Copyright, 김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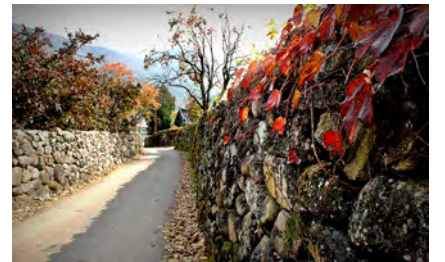
내심낙원, 한국 건축가 승효상의 명정, 사담, 현암, 와사, 조사, 최옥의 가가빈빈, 박창열의 사야정 등의 건축물이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사유원은 원내를 거닐며 자아를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진정한 '사유'의 정원이다.

천 년을 이어온 돌담마을_한밤마을 / 군위군 부계면

대울리 한밤마을은 집집마다 야트막한 돌담들이 두런두런 옛이야기를 나누듯 정겨운 모습으로 둘러져 있는 마을이다.

950년 경 부림홍씨의 입향조 홍란이라는 선비가 이주해 오면서 마을 이름을 대야(大夜)라 불렀으나 이후 밤야(夜)자 대신 대울(大栗)로 고쳐 부르게 되어 대울리 한밤마을로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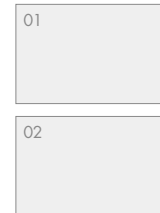
수백년의 세월에도 10리 길의 돌담과 고택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내륙의 제주도라 불리우며,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상상 속의 세계가 열린다_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 / 군위군 의흥면

삼국유사테마파크는 한국의 대표 역사서인 삼국유사(三國遺事) 속 콘텐츠를 시각화한 다양한 전시·조형물과 교육·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 모든 세대의 관람객에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면서 사계절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삼국유사를 주제로 한 전시 및 다양한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가온누리관과 해룡슬라이드, 해룡물놀이장, 해룡열차 등이 있으며, 웅녀동굴, 죽염군수련마당, 국궁체험장, 삼국유사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길 해통미로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즐길거리가 많다.



01. 한밤마을
02. 삼국유사테마파크

대구축제 통합브랜드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판타지아대구페스타」는 대구의 시즌형 축제 통합브랜드이다. 대구는 다채롭고 역동적인 지역의 축제들을 모아 5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이 기간중 대구를 방문하면 공연, 음악, 전시, 거리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도심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봄축제

5월 봄축제는 시민참여형 종합축제이다. 아시아 최대규모 도심퍼레이드인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은 대구 중심인 국제보상로를 24시간 전면통제한 가운데 시민들과 국내외 전문 퍼레이드팀이 펼치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거리퍼레이드와 지역예술인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거리문화예술제로 진행된다.

3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구약령사에서 개최되는 '약령시한방문화축제'는 12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대표적인 한의약 축제로 한방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관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젊음의 거리인 동성로에서 개최되는 '동성로 축제'는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축제로 쇼핑과 함께 다양한 체험·판매부스, 버스킹 공연이 거리 곳곳에서 펼쳐져 역동적인 도심 분위기를 만끽하기에 손색이 없다.

그 밖에 생활문화인들이 기량을 펼치는 '대구생활문화제', 종합국악경연대회인 '대구국악제',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인 '대구탐밴드경연대회'도 만날 수 있다.



01

02

01. 파워풀대구페스티벌
02. 파워풀대구페스티벌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가을축제

10월 가을축제는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 대구의 면모를 보여줄 품격높은 공연문화 예술축제들로 구성된다. 먼저, 아시아 최대규모의 '대구오페라 축제'에서는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제작극장인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제작한 작품을 비롯하여 국내·외 유명 오페라단의 수준높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국내 최고 클래식 전용홀로 손꼽히는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개최되는 화려한 교향악 축제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외 명문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지역대표 교향악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낭만적인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 호러, 가족극 등 다양한 연극과 부대행사를 선보이는 '대구국제힐링 공연예술제', 무용·음악 등 공연과 기획전시로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구종합예술제', 야외 포크송 공연인 '대구포크페스티벌', 게임, 웹툰, 캐릭터 등의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인 '대구콘텐츠페어'도 가을축제에서 선보인다.



01

02

01. 대구국제오페라축제-살로메
02. 대구콘텐츠페어 행사장

In search of Glocal Innovators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대구광역시 편

최수현(협의회 대학생 서포터즈 18기)

난치성 신경질환의 희망의 별,
(주)아스트로젠 황수경 대표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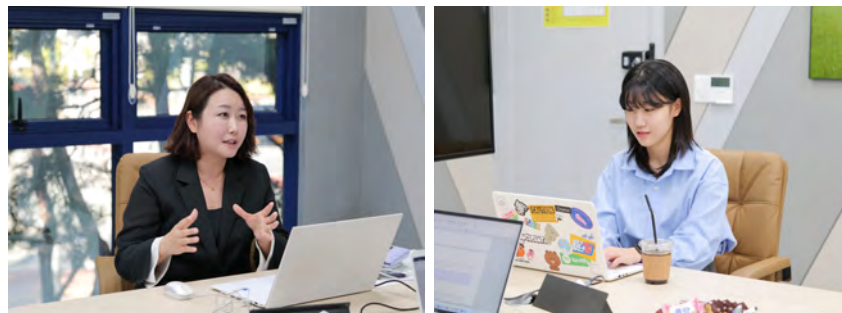


난치성 신경질환의 희망의 별, 아스트로젠 (astrogen)

(주)아스트로젠은 자폐스펙트럼, 알츠하이머와 같이 근본적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신경질환의 신약개발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2017년 7월에 설립되어 약 7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인 자폐스펙트럼 치료제(AST-001)가 2상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200', 금융위원회의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데 이어 본사가 위치한 대구광역시에서 프리스타기업,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지역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의학계의 희망이 되어줄 (주)아스트로젠을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 대구광역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향했다.

환자를 위한 의사의 사명감

황수경 대표는 현재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신경과 의사로 재직중이다. 의료진으로서 발달장애나 유전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환을 진단하면서도 명확한 치료법과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한계를 느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경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안전한 물질을 발견했으나 승인을 받은 약물만 처방을 내릴 수 있어 직접적인 사용은 불가능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학교수 및 연구자, 제약회사를 찾아다녔지만, 당시 사업화에 대해 무지했던 탓에 현실화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왔다. 결국, 황수경 대표는 '환자들을 위한 처방'이라는 한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창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왜 대구인가?

2017년 창업 당시 근무 중인 대학병원의 진료업무와 회사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 대학병원 인근 작은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고, 대학교 내에 위치한 테크노파크에 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사업을 확장하며 2020년에 현재 본사가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로 이전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의약품생산센터, 한국뇌연구원 등의 인프라가 갖춰진 의료산업단지,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 및 공동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주)아스트로젠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함으로써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자폐스펙트럼치료제(AST-001)의 임상1상 의약품을 의약품생산센터를 통해 생산하여 진행하였고, 의약품생산센터가 본사에서 가까이 있어 협업이 매우 원활했다고 한다. 다른 파이프라인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유효성 평가도 한국뇌연구원과 협동 진행하는 등 신약개발업을 영위하기에는 장점이 많은 곳이 대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난치성 신경치료의 별이 되기 위해

작년 12월, AST-001의 임상 2상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며, 불모지로 통용되던 자폐스펙트럼 치료제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주)아스트로젠은 곧바로 임상3상을 앞두고 있다.

임상 3상은 지난 6월 식약처의 IND승인을 받아 시작되었으며, 시험군 85명, 위약대조군 85명으로 총 1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8월부터 첫 환자 등록을 시작해 현재는 전국 11개 기관에서 환자 등록 30%를 마치는 등의 순항을 보여주고 있다. 예민한 자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 만큼 다른 임상에 비해 주의점이 많아 난관이 예상된다. 게다가 신경계 질환은 신체의 변화 및 예측을 알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임상심리사를 동반한 심리검사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황수경 대표는 임상심리사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임상 시험약의 운송과 시험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임상3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더라도 식약처 심사와 허가까지 약 1년 이상 필요하다. 시판 이후에도 혹시나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작업이라 여러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다행인 점은, 2상 임상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목도한 교수진들이 그대로 3상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어 참여자 대부분이 개발 열의가 높으며,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덧붙여 황수경 대표는 "출시 일자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중추신경계 질환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

중추신경계질환의 신약개발이 어려운 것은 바이오마커가 없는 탓도 크지만, 난치성 신경질환이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해 발병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특정 대상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없기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한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실험을 통한 독성 및 유효성 검사, 사후 관리 과정에서 수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실험뿐만 아니라 제형 생산과정에서 물질 합성과 생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에 치료 효과가 우수하면서도 안전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가지 더 힘들었던 점은, (주)아스트로젠에게 '대구광역시 1호 신약개발기업'이라는 명칭이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 신약개발 기업 및 인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황수경 대표는 말했다. 이에 덧붙여 황수경 대표는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설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며, “지역인재 양성과 더불어 외부 인력들이 와서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밝혔다.

설립 5년 만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

우선, 다른 기업들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으로 임상의가 주도적으로 임상에 참여하여 신약개발을 하는 '임상 주도의 신약개발'을 들었다. 기존 신약개발의 경우 개발과 임상을 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약물 개발 후에도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질을 찾아낸 뒤 현장에 적용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주)아스트로젠의 AST-001은 현장에서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기존 식용물질을 약물화하는 방법을 통해 임상과 개발을 같이 진행함으로써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임에도 강력한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강점이다. 회사 내에 의약합성, 약효평가, 동물실험, CMC 연구, 비임상연구, 임상연구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시설이 갖춰져 있다. 예를 들어, 연구분석을 외주에 맡기는 경우 몇 주가 소요되지만, 과정 대부분이 내재화되어 있는 (주)아스트로젠에선 단 며칠이면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경영적인 측면에선 보자면, TWO TRACK 전략으로 빠른 상업화와 글로벌 빅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우선 국내의 상업화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고차 개발단계로 가며 글로벌 진출을 도모한다. 지속적으로 외부자본 유치에만 의존하거나, 연속성이 낮은 기술수출을 주로 하는 국내 바이오산업들과의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초기부터 경영본부를 분리운영하여 기업 운영 및 재무관련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빠른 기업성장을 가능케 한 차별점으로 들었다.

(주)아스트로젠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외형성장만 추구해서는 리스크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지속 가능케 하도록 내면의 가치에 중점을 두겠다는 기업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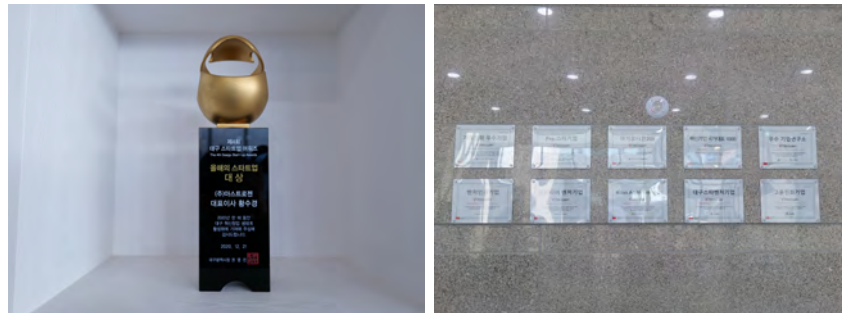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제의 성과를 도출하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창립 5주년에는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연주회를 진행하였고, '세계자폐인식개선행사'엔 매년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정서보호 및 운동치료를 지원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주)아스트로젠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되는 'ESG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람우선’ 아스트로젠만의 기업문화

(주)아스트로젠은 ‘회사의 처음이자 끝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기업 가치에 입각해 만들어진 젊은 기업문화가 있다. 회사 건물 중앙에는 고급 커피머신을 구비한 카페테리아와 스낵바를 운영하여 편안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들간의 수평적인 소통을 돕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과 소통의 기업문화가 잘 반영되도록 실천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 주간지식공유를 통해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관심 주제에 대한 지식을 나누며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단순히 업무역량향상에만 한정하지 않는 자기계발비 지원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독려함으로써, 현재 주간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임직원이 4명이나 있을 정도로 자기계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육아와 관련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 의료상담을 황수경 대표가 직접 1:1로 해준다는 것도 매력적인 복지 중 하나로 뽑혔다.



하나라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 목표

(주)아스트로젠은 적어도 하나의 난치성 신경질환을 완전하게 극복하겠다는 기업목표가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을 꾸준히 성장시키고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을 확대해나가며, 더 많은 임상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약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월간지방시대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황수경 대표는 투자를 비롯해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운영하며 여러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대구라는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고 지역 내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재원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역에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효율적으로 조성되어 진정한 지방시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월간 지방시대에 (주)아스트로젠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함을 표하며, “누구나 평범한 삶을 지역 어디서나 누릴 수 있도록 대구의 (주)아스트로젠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In case of Glocalism in China

지방시대, 중국 편

송문규(은성글로벌(베이징)부장)

청두 상류국제공항
(Chengdu Shuangliu International Airport)

청두 텐푸국제공항
(Chengdu Tianfu International Airport)

청두 쌍류국제공항 (Chengdu Shuangliu International Airport)



기본사항

중문명칭	成都双流国际机场	지역관리	중국 민용항공 서남지구 관리국
영문명칭	ChengduShuangliu International Airport	터미널면적	50만평방미터
ICAO코드	ZUUU	주기수량	228개
IATA코드	CTU	활주로길이	3,600미터
건축년도	1938년	항공노선수	374편
소속지역	쓰촨성 청두시	여객수송량	5585.9만명(19년도)
공항유형	민용운수공항	화물,우편물동량	62.8만 톤
비행구등급	4F급 ¹⁾	발착 회수	30.9만회

개요

*중국 쓰촨성 청두시 쌍류구(双流区)와 우후구(武侯区)의 경계에 위치한 중국 8대구역 허브공항 중국 8대 구역 허브공항²⁾ : 청두(成都), 우한(武汉), 정저우(郑州), 선양(沈阳), 충칭(重庆), 쿤밍(昆明), 시안(西安), 우루무치(乌鲁木齐)으로 1938년 쌍구이쓰(雙桂寺)공항에서 출발해 1956년 민간항공이 취항하면서 쌍류공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2001년 제1터미널을 오픈했고 2011년 두 번째 활주로를 운행하였으며, 2012년

1) 4F급 공항 : 공항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4F급이 되어야 대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 중국은 18개 4F급 공항보유(중국전체 공항수 600개)

제2터미널이 오픈하면서 두개터미널 운영, 23년 9월부터 활주로 확장공사 중이다.

*청두 쌍류국제공항은 총면적 50만 평방미터, A380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2개의 평행 활주로, 3개의 항공화물터미널, 7개의 항공기 계류구역, 총 228개의 계류공간, 85개의 탑승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항 내부는 도로, 철도, 고속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입체적 환승을 실현하고 공항외부에 3개의 도시 터미널을 건설하여 주변도시와 연계성을 높인다.

서비스특징

1) 무비자통과

2013년부터 중국에서 4번째로 외국인에 대해 무비자 경유 정책을 시작하여 수속을 완화함으로써 연계 항공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중국비자 없이 쌍류국제공항으로 입국해 72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2) 셀프체크인

2006년부터 셀프 체크인 카운터를 개설하였고 2013년 여객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시작하여 여행객에게 빠른 수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자동수하물위탁(셀프백드롭)

2017년부터 탑승객이 항공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수하물을 직접 위탁하는 자동화기기가 도입되었다.

리모델링 이슈

품질개선 프로젝트 (2023년 9월~2025년 12월)

1터미널, 2터미널 보안 검색 및 체크인 시스템과 수하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스마트 검색통로를 설치하고, 현재 수하물 분류시스템을 전 자동화로 전환하는 한편, 배수, 냉난방, 전력, 소방 등의 시설도 정비하고 정보센터(ITC) 등을 신축하는 등 시설 업데이트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 특히 정보화로의 대대적 전환을 목표로 재난대비 시스템, 전기 및 기계 운영관리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안면 인식기반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및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항공물류

2023년부터 부다페스트, 본머스, 방콕 3개도시와 국제화물노선이 신설되어 총 21개 국제화물 노선을 운항 중. 2023년 7월까지 국제물류 처리량은 29만4천톤으로 청두의 물류처리의 73%를 차지하여 중국서부지역에서 1위를 달성하였다.

2) 중국 8대 구역 허브공항 : 청두(成都), 우한(武汉), 정저우(郑州), 선양(沈阳), 충칭(重庆), 쿤밍(昆明), 시안(西安), 우루무치(乌鲁木齐)



시사점

쌍류국제공항은 중국 서부의 중요한 항공 허브로 지역경제발전과 사회개방을 촉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이번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10개 이상의 국제화물노선을 신규로 개통하고, 30개 이상의 글로벌 주요도시를 포괄하는 정기노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쌍류 국제공항을 국제항공 화물 허브터미널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청두 텐푸국제공항 (Chengdu Tianfu International Airport)



기본사항

중문명칭	成都天府国际机场	지역관리	중국 민용항공 서남지구 관리국
영문명칭	ChengduTianfu International Airport	터미널면적	719,600m ²
ICAO코드	ZUTF	주기수량	210개

IATA코드	TFU	활주로길이	3,400m, 3,800m, 3,200m
건축년도	1938년	항편노선수	221편
소속지역	쓰촨성 청두시	여객수송량	1,327만명
공항유형	민용운수공항	화물, 우편물동량	81,164 톤
비행구등급	4F	발착 회수	12만회

개요

*청두 구공항인 쌍류공항은 2009년 이미 연간 이용객 2천만 명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6천만 명에 육박하면서 수송능력이 포화상태가 되었다. 급증하는 이용객수로 인해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5년간의 건설 끝에 청두 동부신구에 위치한 청두 텐푸(天府) 국제공항이 2021년 정식으로 오픈하며 중국 국내 3번째 듀얼 국제 허브공항이 되었다. 이로써 청두는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시내에 두 개의 국제공항을 갖춘 세 번째 '쌍(双)공항 도시'가 되었다.

*텐푸공항의 총 면적은 71만m²에 달하며 6개의 활주로(평행 활주로 4개, 측 방향 활주로 2개)를 갖추었다.

*2023년 현재 텐푸 국제공항 여객 처리량은 3300만 명을 넘어섰고 화물운송 처리량은 16만 톤을 넘어섰는데 그 중 올해 23년 1월부터 4월까지 여객 처리량은 1209.2만명으로 전국 8위에 올랐으며 물류 처리량은 45,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현재 텐푸국제공항에는 33개의 국내 항공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국내선 269개 노선, 전국 3위 노선, 국제선 노선 34개 노선으로 전국 노선수 4위에 해당한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텐푸 국제공항은 4천만 명의 승객과 70만 톤의 화물 처리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9월 전 세계 공항 이착륙 순위 30위 안에 중국의 5개 공항이 이름을 올렸고, 이 중 청두 텐푸 국제공항이 27위를 차지했다.

서비스특징

1) 셀프서비스 전자동화

중국 서부지역에서 가장 큰 공항인 텐푸공항은 스마트 공항으로서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추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수하물 수속, 출국장 이동, 보안 검색과 탑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셀프서비스'시스템 구축했으며 전체 중국 공항 중 셀프서비스 지원 기기를 최다 보유하고 있다.

3) 글로벌 이착륙 베스트 30 중 5개 중국공항: 상하이 푸둥공항, 광저우 바이윈공항, 베이징 쇼우두공항, 선전 바오안공항, 청두 텐푸공항

2) 일체형 복합교통허브

텐푸공항은 면적 27만4000m²에 달하는 복합교통환승센터(GTC)를 갖추고 두 터미널 사이에 'T'형 구조로 공항을 중심으로 한 일체형 복합교통허브를 운영. 고속철, 지하철, 장거리 버스 및 일반 버스 탑승이 가능하고 택시정류장과 일반 승용차 주차장도 운영 중이다.

3)국제공항 교통 전용라인 24시간운행

청두와 쑤공(自贡)을 잇는 청쓰고속철과 청두, 난충(南充), 다저우(达州), 완저우(万州)를 거치는 고속철은 텐푸공항의 종합교통환승센터(GTC)와 연결, 2026년이 되면 공항에서 지역 간 이동이 보다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한국노선 (인천-청두)

아시아나 직항 주5일(일, 월, 수, 목, 금) 운행

*2023년초 청두쑤류공항의 1터미널 보수로 인해 국제선 모두 텐푸국제공항으로 이전되어 당분간 국제선은 텐푸공항에서만 운행한다.



*쑤류공항과 텐푸공항과의 거리 70Km

*쑤류공항과 텐푸공항간 메트로 24시간 운행

시사점

쑤류국제공항은 청두의 남쪽에 위치하여 시내중심과 외부를 연결하는 공항이었다면, 동부신구에 위치한 텐푸국제공항은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청두시의 남동쪽을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 신축한 공항이다. 또한 고속철도와 공항터미널간의 경계와 거리를 줄여 환승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특히 고속철도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장강삼각주(长三角, 상하이-장쑤성 남부-저장성 북부), 위에강아오따완취(粤港澳大湾区,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등)까지 6-8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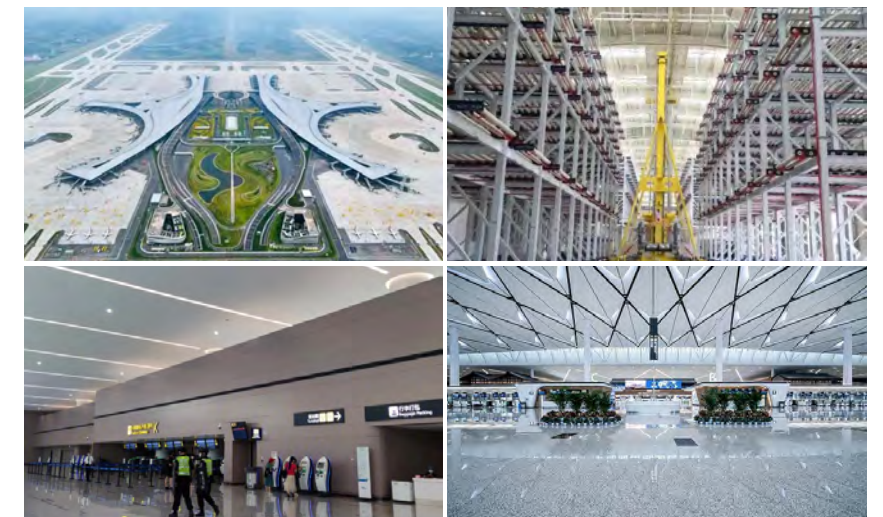
내 이동이 가능하고, 시안, 정저우, 우한 등 중서부도시까지는 3-4시간에 도착이 가능해졌다.

동부신구의 이러한 교통시스템 개발은 향후 2025년-2035년까지 동부신구 발전목표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최근 10년간 약 582만명이나 급속도로 늘어난 청두시 상주 인구 팽창에 따른 주변 도시의 주거 환경 발전규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청두시의 상주인구는 2010년 약 1,512만 명에서 2020년 2,094만 명으로 약 582만 명이 늘어나 상주인구 팽창 측면에서 중국 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 도시의 상주인구 규모와 증가량은 글로벌 도시로 다가설 수 있는 주요한 키워드로 현재 청두시는 상주인구 측면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동급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 청두시 외곽 위성도시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청두시는 향후 10년간 텐푸국제공항을 활용한 공항 주변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설계, 주변 도시 연계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구축하여 구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던 인구를 시 주변으로 분산시키고 주변 도시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2023년 상반기 청두 항공 허브(청두 텐푸 국제공항, 청두 쑤류 공항)는 누적 이착륙 항공편 25만 4,000편, 여객 3,458만 9,000명, 화물 34만 톤으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여객 처리량은 전국 도시 중 상하이·베이징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청두시는 '서부 내륙의 상하이가 되겠다'는 목표로 컨벤션 및 문화, 관광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변도시및 중국 서부지역과 국제도시들과의 연결을 위한 허브역할에 쑤류와 텐푸공항이 주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작성자 송문규

現 은성글로벌(베이징) 부장
現 北京中子律師事務所 고문

중국한국상회 前연구위원
北京師範大學 법학박사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

박관규 센터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신동호(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협력관)

공공의료 체계 강화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안)

공공의료 체계 강화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박관규 센터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교보건강복지부 지난 10월 19일,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①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및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②의사 인력 확대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③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중앙의료네트워크 구축 등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글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소개한다.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며, 그 과제들은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 육성,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넥스트 팬데믹 대응체계 강화 등이다.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 육성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인력).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연구개발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혁신적 R&D 투자를 확대하여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그리고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인프라 첨단화).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네트워크 강화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1차 의료기관).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하여,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을 쏠림을 방지하고자 한다(2차 병원).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전문병원).

국립대병원 등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또한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권한 강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공공병원 표준 협력모델 예시〉

-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공공병원과 네트워크를 맺어(위탁, MOU 등), 인력교류, 전자의무기록(EMR) 통합 등을 통한 환자 의뢰·회송, 교육·경영 컨설팅 등 실시
-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이 원활히 협력하여 난치·재발 환자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의뢰(진료정보 교류로 추가 검사 최소화) → 지역의료 활성화, 수도권 쏠림 완화

자료 : 보건복지부(2023).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비수도권의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필수의료 영역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의사인력의 부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해 인력 확충 기반의 강화 그리고 지역·필수 분야 인력 유입 촉진 등의 해결 방안을 암시한다.

인력확충 기반 강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질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수확보(교수 1인당 학생 8명) 등 법정 기준 준수를 고려하여 배정, 증원 후에도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여건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으로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다.

지역·필수으로 유입 촉진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하여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지역인재).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

공급부족 해소 집중지원	인프라 유지 지원	네트워크 협력 지원
• 중증응급 보상 확대(23.6) -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 치료 시 가산 확대 • 중증 응급 대응 기반 강화(24.1) -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 보상 강화 •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보상시범사업(24.1) - 의료기관 단위 일괄 사후 보상 •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23.1) - 대동맥박리, 소아심장 수술 등 난이도 및 위험도 고려 수가 •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24.1) - 외과계 입원 수술 등 저평가 분야 상대가치 관련	• 취약지고위험 분만지원 (전정심 의결 예정) - 분만의료기관 지역 수가, 고위험분만 보상 관련 등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23.1) - 재택치료 중 중증소아 돌봄부담 경감 단기입원 진료 제공 • 소아 일차의료 지원강화(23.1)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주도의 영유아 건강발달 주기적 관리 시범사업 • 소아 신생아 입원 보상 강화(24.1) -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등 보상강화 •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23.3) - 중증소아환자 대상 재택치료서비스 대상 연령,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 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24년) - 응급심뇌혈관 질환 발생 시 최종 치료까지 시간 단축 등 실적평가·보상 • 심뇌혈관 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24년)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 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24년)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강화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기관단위 성과중심 보상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2023).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 기반 강화

공공의료 전달체계 강화 등의 흐름 속에서 지역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함에 따라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루면서 성취감을 느낀 경우가 더욱 행복할 것이다.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국가지원체계 강화,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및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표 2〉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방향(예시)

- ▶(목적)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 ▲넥스트 팬데믹 대비 + ▲지역소멸 위기 대응
- ▶(투자내용) ❶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기획·운영(시범사업), ❷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❸ 인력 양성·공급, ❹ 인프라 개선·확충, ❺ 필수의료 디지털 전환(기술혁신⇒의료공백 해소)
- ▶(투자방식) 지역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도 등 권역 단위 지역·필수의료 강화 계획에 따라 장기 재정투자 및 성과 관리

자료 : 보건복지부(2023).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국가지원체계 강화

국가의 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은 거버넌스의 확립과 재정투자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의료체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체계 강화한다(거버넌스 확립).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으며, 관계부처 차관과 의료계와 외곽지역의 수요관리가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복지부 장관은 넣어주지 않는가 보네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 등 정책 발굴·논의 지원한다. 지역·필수 의료인력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 지속 확대 및 별도 지원체계 검토한다(재정투자).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국가중앙 수준의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서울대병원은 세계적 중증·필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임상·연구 분야 국가중앙병원의 역할 및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암센터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응급, 감염병, 공공인프라를 총괄하고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지역·필수의료 중추 및 의료 혁신 거점 육성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관리와 소관 부처를 교육부로부터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국립대병원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진료·연구·교육 등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을 혁신해 나간다. 대학과 병원의 협업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 미래 첨단의료 선도를 위해 국립대학과 병원 간 협력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

향후일정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칭 지역·필수의료 혁신추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혁신을 위한 비전과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의 변경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직과 예산을 포함한 소관부처 변경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규제혁신, 법제 개선, 재정투자 확대, 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 등의 핵심 과제별 후속 조치는 2024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23).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2023. 10. 19 발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안) 신동호(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협력관)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공청회를 열어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다.

본 글은 지방 공교육을 강화해 지역 인재를 키우고, 이렇게 육성한 우수 인재들이 정주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발전특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에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교육 및 정주여건 미비로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이 같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발전전략과 지역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교육의 틀 안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교육·문화·거주 기반을 개선하여 우수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주 체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내용

교육발전특구 개요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하고,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운영하며,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지정 대상 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아·돌봄부터 초·중·고, 대학 교육까지 연계한 지역 교육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모델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초·중·고 학생 선발과 교육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도 추진할 수 있다. 의대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 대해 지역 인재 특별전형 비율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지역의 중점 육성 산업과 연계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에서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정책방향 및 교육단계별 추진내용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네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지역에서 공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둘째,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성·추진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확대한다.

넷째,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내용은 먼저 유아·돌봄 분야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방과 후 및 늘봄지원 센터 운영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며, 초·중·고 분야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고등교육 분야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대학이 지역교육 및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표 1〉 교육발전특구 선순환 체계(안)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목표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주도 교육개혁 지원 • 지역의 좋은 학교 육성	• 지역인재 유출 방지
추진 방향	•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 • 유보통합 시범운영	• 공교육 경쟁력 제고 • 디지털기반 수업 혁신	• 고교-대학-지역 연계 강화 • 지역인재 선발·양성
성과 지표	• 출산율 상승	• 학업성취도 상승 • 사교육비 감소	•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

자료: 교육부(2023),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과 지원 체계

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 방안(안)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의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방에서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특구 내 학교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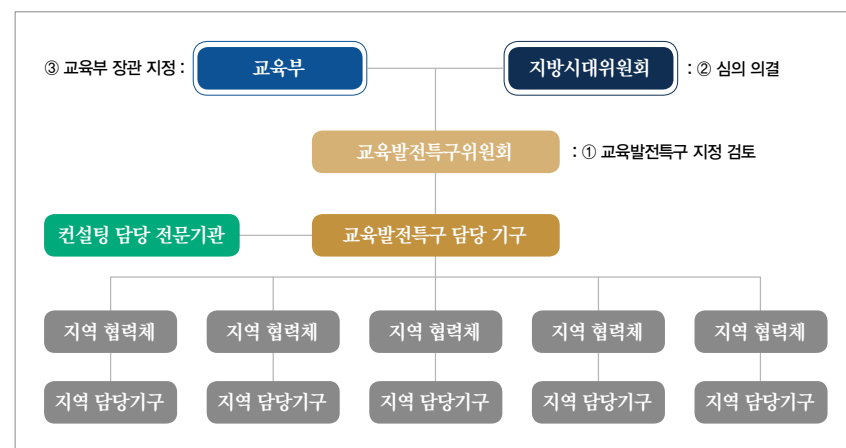
재정적 측면에서도 교육에 대한 지역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투입하며,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교육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를 검토하게 되며,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교육발전특구 담당기구는 교육부 내에 담당 조직을 설치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부처,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육발전특구의 추진전략 개발과 관리 및 규제개선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림〉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체계



자료: 교육부(2023),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지역 협력체는 교육발전특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및 지역기업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담당 기구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내에 설치하여 교육청·공공기관·기업·대학과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향후 일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지정 및 운영

시범지역 신청 단위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연합하여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표 2〉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 단위·신청 주체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자료: 교육부(2023),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시범지역 지정 대상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지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하며,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관련 향후 일정

교육부는 11월부터 12월중에 전국 지방정부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중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에 이어 12월부터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를 추진, 2024년부터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 및 운영할 예정이다.

〈표 3〉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관련 주요 일정



자료: 교육부(2023),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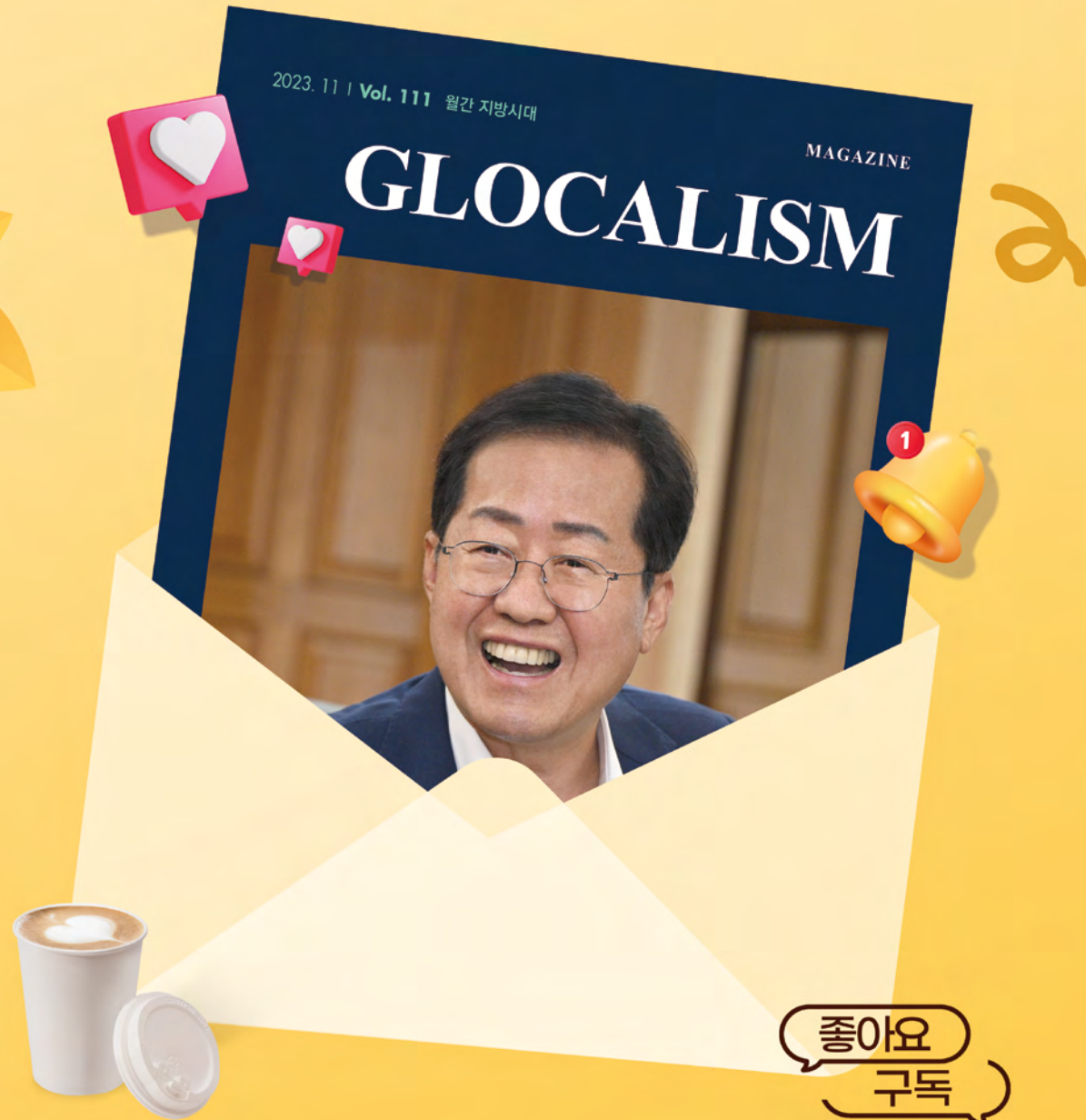
〈참고자료〉

• 교육부(2023),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공청회(2023.11.2.) 발표.

월간 지방시대 신규 구독 이벤트

대한민국을 받치는 힘!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알찬 소식을 듣는 방법!
월간 지방시대 신규 구독 인증하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자!



- 이벤트 기간** 2023년 11월 10일(금) ~ 2023년 11월 30일(목)
- 당첨자 발표** 2023년 12월 11일(월)
※ 월간 지방시대 12월호 내 당첨자 발표 페이지
-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카페라테(50명)

이벤트 참여 방법



- 1 월간 지방시대를 구독한다.
구독링크 ▶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84/reqNewsLetter.do?viewType=BODY\]](https://www.gaok.or.kr/gaok/bbs/B0000084/reqNewsLetter.do?viewType=BODY)
- 2 구독신청한 이메일주소를 구글폼
[<https://forms.gle/cQ5PwPAb5ytuxkJU8>]에 제출한다.
- 3 당첨자가 발표되는 월간 지방시대 12월호를 기다린다.

이벤트 참여 유의 사항

- ※ 본 이벤트는 월간 지방시대 신규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로 기존 구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1인 1회 참여 가능하며 다중 참여 적발시 안내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여 경품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발송이 불가합니다.
- ※ 경품 품절 시 동일 가격대의 다른 상품으로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는 당첨 발표까지 월간 지방시대 구독을 유지해야 하며 구독을 취소 시 안내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꿀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블로그 이웃을 맺고
이웃 인증 시 당첨 확률 UP!!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gaoksns>

편집후기

월간 지방시대는 시도지사가 생각하는 지방시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며, 지방시대를 위해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례 및 지방시대의 토대를 닦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인물을 찾아 소개한다. 또한 타 국가의 최신 정보 및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정책동향을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

2023년 11월호는 '대구광역시' 편으로 구성,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지방시대 칼럼』은 대구광역시장의 지방시대에 대한 철학과 고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정책우수사례』로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지원 사업,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추진전략을 소개한다.

『대구광역시의 주요정보』에서는 동화사, 갯바위 등으로 유명한 팔공산국립공원과 군위군의 관광명소, 대구의 시즌형 축제 통합브랜드인 '판타지아대구페스타'를 홍보하고,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난치성 신경질환의 신약개발 바이오테크 기업인

(주)아스트로젠 황수경 대표를 인터뷰하였다.

『지방시대 해외정보』는 중국의 청두 쌍류국제공항과 톈푸국제공항에 대한 정보를 싣는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중앙정부 정책동향』은 공공의료 체계강화 :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월간 지방시대는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시도의 특별판으로 기획되어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12월호는 “충청북도”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